

##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축제와 시민의 여가, 그리고 관조\*

손 윤 릹\*\*

### [초 록]

본 연구는 고대 그리스의 축제가 당시 사회에서 어떤 기능을 했으며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어떤 함의를 가졌는지, 나아가 그들 각자의 삶에 궁극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작업이다. 특히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시학』, 『아테네 정제』, 그리고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나타나는 언급들을 중심으로 그리스 축제의 형식과 내용을 재구성해보고, 축제가 당시 시민들에게 가지는 함의를 추적해보려고 한다. 이 연구에서 매개가 되는 것이 축제에 참가하고 공연을 관람하는 시민의 ‘여가’인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유시민의 내적 자격으로서 일정 수준의 교육을 주장할 때 교과목의 하나로써 음악을 강조한 이유와 맥락을 같이 하는 개념이다. 본 연구의 최종적인 주장은

---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 지원한 집담회의 성과임.

\*\* 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 교수

주제어: 그리스 축제,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시민의 여가, 연극 관람, 관조  
Greek Festival, Aristotle's *Politics*, Civic Leisure, Watching Theater, Contemplation

축제의 공연 관객의 관람(theorein)과 인간의 삶의 최고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관조(theoria)가 연결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유시민의 삶에서 한편으로 정치적 참여와 공적 행위를 중시하면서도, 다른 한편 개인적으로는 그 자체가 목적인, 외적 활동보다 더 활동적이라 할 수 있는 관조와 사색을 통해 최선의 삶에 다가갈 수 있다고 보았다. 우리의 주장은 아테네 시민의 삶에서 이 공적인 활동과 개인적인 사색을 연결해주는 가장 중요한 계기 중 하나가 축제의 참여와 연극 공연의 관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생각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 의거해서 볼 때, 축제의 참여와 특히 연극 공연의 관람이 자유시민의 공적인 행위이면서 동시에 개인적인 사색의 시작이 된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왜냐하면 관조는 현실의 삶과 무관하거나 동떨어진 어떤 것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현실의 문제, 관람한 작품에서 문제로 부각되는 사태, 나에게 주어진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사색이며 근본적인 성찰이기 때문이다.

## 1. 들어가기

고대 그리스인들은 지역마다 도시마다 일 년 내내 축제를 열었다고 하는데, 그만큼 그리스의 축제는 전통이 오래되고 다양했다. 제의와 축제는 각 지역의 전통으로도 내려왔지만 국가가 어떻게 행사를 거행할지를 법으로 규정했으며, 이렇게 국가의 의지와 시민들의 참여로 발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그리스의 축제가 그 자체로 당시의 사회에서 어떤 기능을 했으며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어떤 함의를 가졌는지, 나아가 그들 각자의 삶에 궁극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답하기 어려운데, 우리의 연구는 바로 이 물음에 초점을 맞추어보고자 한다. 특히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텍스트에 나타나는 언급들을 중심으로 그리스 축제의 형식과 내용을 재구성해보고, 축제가 당시 시민들에

게 가지는 함의를 추적해보려고 한다. 이 연구에서 매개가 되는 것이 축제에 참가하고 공연을 관람하는 시민의 여가(scholē)인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유시민의 내적 자격으로서 일정 수준의 기초교육이 필요함을 주장할 때 교과목의 하나로써 음악을 강조한 이유와 맥락을 같이 하는 개념이다. 자유시민으로 성장할 아이에게 여가의 선용을 습관들이기 위해 음악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최종적인 주장은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축제의 공연 관객의 관람(theorein)과 인간의 삶의 최고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관조(theoria)가 연결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국가 안에서 완전한 권리와 자유를 누리는, 노동에 매이지 않은 자유시민의 삶은 공적인 차원에서 국가의 업무에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그 자체가 목적인 사색과 관조에 이를 때 가장 높은 차원에 도달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공적인 삶과 개인적인 삶 둘 다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 공적인 활동과 개인적인 사색을 연결해주는 가장 중요한 계기 중 하나가 축제와 연극 공연에의 참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가설이다.

## 2. 그리스에서 축제의 기원, 국가와 축제

### 2.1. 축제의 기원

옛날부터 사회적 의식으로서 의례와 즐길 거리로서의 잔치는 함께했으며, 이를 ‘축제’라는 말 안에 포함시킨다면 그리스인들에게 축제는 아주 오래된 것으로, 신화와 전통의 이야기를 담은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오뒤세이아』에서부터 그 사회적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일리아스』 1권에서 여신 테티스가 아들 아킬레우스에게 하는 말로서, 신들이

인간들이 차린 잔치에 참석한다는 언급이다. “제우스는 어제 나무랄 데 없는 아이티오페스족의 잔치(daīta)에 참석하려고 오케아노스로 가셨고, 다른 신들도 모두 따라갔다. 열이틀째 되는 날 다시 올림포스로 돌아오실 것인즉. [...]”<sup>1)</sup> 또한 같은 책에서, 오뒤세우스 일행이 크뤼세로 크뤼세이스를 돌려주러 가서 아폴론 신을 위한 대규모 제의인 헤카툼베를 바치는 장면이다. “그들은 지체 없이 신에게 바칠 신성한 헤카툼베를 훌륭하게 만들어진 제단 주위에 질서 있게 진설한 다음 손을 씻고 제물에 뿌릴 보리를 집어들었다. 그러자 크뤼세스가 두 손을 들고 그들을 위해 큰 소리로 기도를 올렸다. [...] 아폴론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었다.”<sup>2)</sup> 이 장면은 제의의 현장을 묘사한 것으로, 여기에는 인간과 신의 가운데에 사제가 있고, 인간들은 사제를 통해 제물을 바침으로써 신에게 제의를 올리는 서양 제의의 기본적인 구도가 드러난다. 그리고 『오뒤세이아』 3권에는 아버지의 소식을 찾아 여행을 떠난 텔레마코스가 네스토르의 나라 펠로스에서 본 거대한 규모의 제의 묘사이다. “그곳 백성들은 마침 바닷가에서 새까만 황소들을 잡아, 대지를 흔드는 검푸른 머리의 신에게 제물로 바치고 있었다. 그곳에는 아홉 줄의 좌석이 있었는데, 각 줄마다 오백 명씩 앉아 있었고, 각 줄마다 황소 아홉 마리씩 준비하고 있었다.”<sup>3)</sup> 이 묘사에 따라 셈을 해보면 이 제의의 참석자는 모두 4,500명이고, 제물로 바치는 황소는 전부 81마리의 대규모이다. 조금 더 나가서 『오뒤세이아』 8권에는 파리아케스인들의 왕 알키노오스가 표류해온 손님 오뒤세우스를 극진하게 환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먼저 신들에게 바치는 제의가 있고, 이어서 연회와 음악 연주, 그리고 운동 경기가 나온다. 다음은 알키노오스의 말이다. “그대들 홀을 가진 왕들은 아름다운 내 집으로 가서 나그네를 환대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신과 같은 가인 데모도

1) 호메로스, 『일리아스』 1권 423-425행.

2) 같은 책, 1권 447-457행.

3) 호메로스, 『오뒤세이아』 3권 5-8행.

코스를 불러주시오. [...] 그들 사이에서 알키노오스는 양 열두 마리와 번쩍이는 엄니의 돼지 여덟 마리와 걸음이 무거운 황소 두 마리를 제물로 바쳤다. 그들은 이것들의 가죽을 벗기고 잘 장만하여 훌륭한 잔치를(dait'erateinēn) 준비했다.”<sup>4)</sup>

이렇게 해서 제의와 연회가 끝나면, 눈먼 관객이 시동을 따라 들어와 자리를 잡고 포르밍크스를 연주하며 노래하고, 젊은이들이 운동경기를 벌인다. 그런데 축제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이 장면들은 모두 개인이나 마을 단위가 아닌, 국가적인 제의 혹은 잔치를 묘사하거나 짐작하게 한다. 신들을 위한 잔치든 인간을 위한 잔치든 이러한 제의나 사회적 차원의 의식들이 보여주는 형식과 내용이 후대의 축제의 기원이 된다. 기원전 5세기와 4세기를 일컫는 고전기 그리스로 내려와, 축제를 사회적, 국가적 의식의 한 형태로서 전통적인 제의와 행렬을 포함한 구경거리를 제공하는 일종의 사회적 놀이라고 할 때, 이는 무엇보다 해당 국가의 시민에게 여가를 즐기고 자부심을 고취하도록 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축제(heortē)의 기원을 국가의 목적에서 찾고 잔치(daitē)를 자유시민(eleutheros)에게 마땅한 것이라고 말한 점에 주목해볼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 3권에서 국가는 모여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 살기(eu zēn)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결국 국가의 성립 목적은 시민들의 완전하고 자족적인 삶이라고 규정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한다. “국가란 그 구성원의 가족들과 씨족들이 훌륭하게 살(eu zēn) 수 있게 해주기 위한 공동체이며, 그 목적은 완전하고 자족적인 삶이다. 그런 공동체는 같은 곳에 살며 서로 혼인하는 자들 사이에서만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국가에는 친인척 관계와 씨족 연맹과 축제(thysiai)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오락(diagōgai)이 생겨나는 것이다.”<sup>5)</sup> 그

4) 같은 책, 8권 41-43행, 59-61행. 고대 그리스에서 희생제의에 사용된 음식에 대한 연구로는 J-P. Vernant, M. Détienne (1979) 참조.

러나 이런 것들은 우애(philía)의 산물이다. 함께 살겠다는 의지야말로 다름 아닌 우애이기 때문이다.”<sup>6)</sup> 여기서 우리는 축제가 개인의 일이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국가 차원의 문제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 2.2. 국가와 축제

고대 그리스의 축제의 기원과 발전을 폴리스 즉 국가의 건립이나 정치적 상황에서 찾는 시도는 일반적인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디오닉소스 제전에서부터 서양의 연극을 연구한 김광선에 따르면, 헤로도토스는 비극의 탄생이 정치적인 목적에 그 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sup>7)</sup>

헤로도토스는 비극의 탄생이 정치적인 목적에 그 뿌리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비극적 코러스는 원래 시를 건립한 영웅을 대상으로 삼아 영웅의 고통을 찬미할 목적으로 불렀다고 한다. 그런데 독재자가 생기면서 이전 영웅에 대한 찬가를 용인할 수 없었기에 원래 영웅을 대상으로 했던 제전을 바꿔 디오니소스에게 찬가를 바치게 했다는 것이다.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인용한 이 구절에서 “독재자”란 표현은 그리스 역사에서 참주를 의미하는 tyrannos를 번역한 것이고, 특히 이 구절에서 아테네의 참주 페이시스트라토스를 가리키는 말이다. 헤로도토스의 이 언급은 평민들의 지지를 받아 일인 통치자가 된 참주 페이시스트

---

5) LSJ Greek-English Lexicon: thysiai는 희생제의를 가리킨다. diagōgē는 시간보내기나 휴식의 뜻이지만, 지성적 활동을 포함하여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는 다양한 층위의 삶의 방식을 가리킬 수 있다.

6)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3권, 1280b32-36.

7) 김광선, 『디오닉소스제전에서 뮤지컬까지. 서양음악극의 역사』, 연극과인간, 2009, 14쪽.

라토스가 아테네에서 처음으로 디오니소스 제전에서 비극 경연대회를 국가적 업무로 승격시킴으로써 비극 장르 자체가 발전하게 된 계기를 설명할 뿐 아니라, 비극 경연에 있어서 일반 평민을 포함한 시민의 참여가 중요성을 가지게 되는 정치적 맥락을 함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 텍스트들에서 국가와 제의, 그리고 축제에 관련한 언급들을 남기고 있는데, 대부분 제의나 축제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이나 공직에 관한 내용이며 특히 아테네의 실제 조직에 대한 설명이 있다.

[TI] 『정치학』에서 제례 및 축제

- [사제와 신전지기] “그 밖에도 신과 관련된 업무 영역이 있다. 이 업무는 사제와 신전지기들이 관장하는데, 이들은 기존 건물을 유지하고, 허물어지려는 건물을 보수하고, 그 밖에 신의 예배와 관련된 모든 일을 도맡아본다.<sup>8)</sup>
- [집정관, 바실레우스] “이들 공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또 다른 공직이 하나 있는데, 이 공직을 맡은 사람들은 법에 의해 사제들에게 위임되지 않은, 각별히 국가의 제단에서 바쳐지는 모든 공적 제물을 관장한다. 이들 공직자는 집정관(archon)이라 불리기도 하고, 바실레우스(basileus)라 불리기도 하며, 프뤼타니스(prytanis)라 불리기도 한다.<sup>9)</sup>
- [여가 국가의 축제 공직] “그 밖에 더 여가를 즐기고 더 번영을 누리며 훌륭한 질서에 관심이 있는 국가들만이 가질 수 있는 공직이 있는데, 여인들에 대한 감독, 법률의 수호, 어린아이들에 대한 감독, 체력 단련에 대한 감독이 그 업무 영역이다. 그 밖에 체전(agōn gymni-

8)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1322b18ff.

9) 같은 책, 1322b25ff.

kon)과 디오누소스 제전과 기타 구경거리(theōria)를 관장하는 것도 그 업무 영역이다.”<sup>10)</sup>

[T2] 『시학』에서 희극 공연의 운영

- [코로스 비용] “집정관(archon)이 희극 시인에게 코로스를 제공한 것은 후기의 일이고, 처음에는 시인 자신이 자변하였다.”<sup>11)</sup>

[T3] 『아테네 정체』에서 축제

- [500인 평의회(boulē) 설명 중, 축제의 형식과 내용] “그들은 또한 추첨으로 “속죄의식 제관”이라 불리는 10명의 제관(hieropoios)들을 뽑는데, 이들이 신탁에서 요구된 희생제를 올리며, 전조가 필요하면 예언자(mantis)들과 함께 좋은 전조를 찾는다.(6절) 또 추첨으로 “1년 제관”이라 불리는 다른 10명의 제관들을 뽑는데, 이들이 특정 번제들을 올리고 판아테나이아 이외의 모든 4년 주기 축제들을 관장한다.”<sup>12)</sup>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언급들에서 어떤 의미 있는, 인문학적인 함의를 잡아낼 수 있을까? 아마도, 우리는 여기서 축제를 주재하는 희생 제관이 타고난 신분이 아니라 500인 평의회에서 추첨에 뽑힌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정 하에서 일반 시민이 축제의 제관을 맡았다는 것이다. 이 시기에 부유한 시민이 코레고스(choregos)를 맡아 연극 경연의 비용을 지불했으며, 페리클레스 시대에는 공연 관람에 온 가난한 시민에게 일당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sup>13)</sup> 이제

---

10) 같은 책, 1322b37ff. 일상어로 theoria는 볼거리, 구경거리라는 말인데, 특히 극장이나 운동경기에서 공적인 구경거리를 의미한다.

11)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5장, 1449b1ff.

12) 아리스토텔레스, 『아테네 정체』 54.7.

13) Plutarch. Pericles, 9.1. 페리클레스는 또한 법정의 시민 배심원에게 일당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정치학』 1274a9.

여기에서 희극 시인에게도 코로스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더구나 축제의 사제직마저 일반 시민이 담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민주정 하에서 그리스의 축제는 제작과 관람 뿐 아니라 제의를 주관하는 단계에서부터 시민의 참여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해두고 축제의 기능 문제로 넘어가기로 하자.<sup>14)</sup>

### 3. 축제의 기능

앞에서 본 것처럼 그리스에서 신들에게 바치는 제의와 축제는 국가적 업무였고, 전통적으로 국가가 관장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국가(polis)에서 축제는 어떤 기능을 하는가의 문제를 논의해보자. 이 문제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한다면 다음과 같다. 즉, 축제는 사회적으로는 시민의 하나됨(homonoia)과 국가의 통일성에 기여하며, 시민 개개인에게는 자유시민으로서 여가를 선용하기라는 의미가 있고, 또 그 이상의 어떤 것이 있을 것 같다는 것이다.

#### 3.1. 시민의 하나됨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 7권에서 모든 국가에 필요한 여섯 가지 기능 혹은 필수 요소로 식량, 기술, 무구, 세입을 말한 다음 다섯 번째로 ‘의식’을 언급한다.<sup>15)</sup> “다섯 째는 (실제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의

14)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축제 참여가 시민의 삶에서 가지는 중요성과 함의를 주제적으로 논하는 구절을 찾기는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그리스 축제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를 포함한 고전기 자료보다는 파우사니아스(Hellados Periēgēsis) 등 주로 후대의 전거가 쓰이는 것이 사실이다.

15)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1328a35. “국가는 동등한 자들의 공동체이고 그 목적은 가능한 최선의 삶이다. 그런데 최선의 삶은 행복이고 행복은 탁월함의 구현과 완전

식(hierateia)이라고 부르는 신들에 대한 예배다(peri ta theion epimeleia). 여섯 번째는 법이다. [...] 이 중 한 가지라도 빠지게 되면 이 공동체는 완전 자급자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에는 농민, 기술자, 전사, 부유층, 사제들, 그리고 올바르고 유익한 것을 결정해줄 자들이 있어야 한다.”<sup>16)</sup>

아리스토텔레스는 최선의 정체에서 제례 의식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신들의 예배에 드는 비용도 국가 전체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한다.<sup>17)</sup> 또한 도시의 설계에서 신전의 위치와 사제의 지위에 대해 언급한다. “예배의식을 위한 신전과 공직자들을 위한 주요 공동식사 장소는 적당한 곳에 함께 모여 있어야 한다. [...] 국가의 지배계층은 사제와 공직자로 나뉘는 만큼, 사제들도 당연히 신전 근처에 공동식사 장소를 가져야 한다.”<sup>18)</sup> 공직자와 함께 사제들이 국가의 지배계층을 이루는 이유는, 이들과 마찬가지로 국가 성립에 필수적인 농민, 기술자, 전사 등과 비교해본다면, 그들이 담당하던 일이 국가적 사회적으로 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일 것이다. 사회적 제례와 의식으로서 축제는 국가적 필요에 의해 형성되고 발전했으며, 무엇보다 정치적, 사회적인 기능이 있다. 국가에서 축제는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대한 물음을 사회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대답은 시민들의 함께 살기(syzēn, koinonia)와 하나됨(homonoia, 합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위의 『정치학』 3권 인용문에서도 보았듯이 시민의 완전하고 자족적인 삶을 목표로 하는 공동체, 즉 국가는 결국 그 구성원들의 함께 살기와 우애의 산물이다. 그리고 함께 살기를 전제로 하는 ‘사회적 우애’에서 가

---

한 실천에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행복에 참여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참여하거나 전혀 참여하지 못한다.”

16) 위의 책, 1328b13-23.

17) 위의 책, 1330a8.

18) 위의 책, 1331a25-b4.

장 중요한 것은 하나됨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됨은 심리적으로는 마음의 일치이지만 정치적으로는 합의를 의미하며, 따라서 그것이 국가의 성립과 유지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멋진 행렬과 장엄한 의례에 참여할 기회, 풍성한 음식과 즐거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축제는 의회나 법정에서보다 더 많은, 가장 많은 수의 시민과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이자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으로 그들의 하나됨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국가로서는 이것만으로도 훌륭한 축제를 개최할 이유가 있다. 그러나 시민은 여기서 나아가 개인적으로 축제에 참가할 다양한 이유를 가질 것이다.

아테네의 대 디오니소스 제전(megala Dionysia)이 하나의 모델이 된다. 도시 디오니시아로 불리기도 하는 이 축제는 매년 3월말~4월초에 해당 하는 엘라페불리온 달에 열리며 엘레우시스로부터 디오니소스 신을 맞이하는 제식이다. 행사는 크게 희극과 비극의 경연(agōn)과 경연 전에 행해지는 프로아곤(proagōn)으로 구분되는데, 프로아곤은 경연 전날 디오니소스 신의 영접(eisagoge), 희생제를 치르기 위해 디오니소스 극장 옆의 성소까지 가는 행렬(pompe), 그리고 저녁의 축하잔치(komos)로 이루어진다.<sup>19)</sup> 디오니소스 신을 영접하는 환영식(xenismos)은 프리타네이온에서 ‘신성한 화덕의식’으로 거행되었는데, 이곳은 아테네에서 전통적으로 전체 시민의 공공식사를 하거나 외국의 귀빈을 국가적 차원에서 환대하는 장소였다.<sup>20)</sup> 즉 프리타네이온은 아테네의 신성한 공동 화덕(hestia koine)이 있는 곳으로, 도시의 상징적인 중심이다. 이곳으로부터 각각의 시민은 등거리에 있다는 등거리성(isonomia)의 원칙은 국가를 대등한 시민의 공동체로 인식하게 해주었다.<sup>21)</sup> 그러므로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19) 문혜경(2014), 11쪽.

20) 아리스토텔레스 『아테네 정제』 3.5, 36.4-5. 문혜경(2014), 12쪽.

21) J.-P. Vernant (1966), 『그리스인들의 신화와 사유』, 박희영 옮김, 아카넷, 2005, 258-60쪽.

하는 곳에서 민중들의 신인 디오뉴소스를 영접한다는 것은 시민 대중들에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바탕이 된다. 전야제 다음 날 대 디오뉴시아의 본 행사인 연극 경연이 있기 전에, 모든 시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국가적 행사가 열렸다. 이때 역시 디오뉴소스 신을 영접했던 10명의 사제들이 집전했다. 기존의 제사장인 바실레우스가 아니라 각 데모스에서 1명씩 추천에 의해 선발된 10명의 집정관들이 사제로서 제전을 주관한 것인데,<sup>22)</sup> 이것은 기존의 바실레우스의 권위를 무너뜨린 것이며 전통적인 사제 계급에서 호선하는 것도 아닌 데모스 추천제를 택함으로써 국가의 최고 권위를 시민들에게 무작위로 맡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23)</sup> 국가 행사에는 사제들의 헌주를 시작으로 동맹 폴리스들의 공물 전시, 전몰 시민의 자식들의 완전무장 열병식이 있었다.<sup>24)</sup> 여기서 시민들은 자신의 도시 아테네의 위대함을 새삼 느끼고 자부심을 드높이게 되며,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와 공동의 현안들에 다시 한 번 관심을 갖게 된다. 이것은 시민들 간의 더 많은 만남과 대화,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주며 결국 국가가 추구하는바 시민들의 마음의 일치(homonoia)를 이룰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 3.2. 여가와 자유민의 삶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 7권에서 국가의 입법가가 평화와 여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입법자는 마땅히 전쟁과 그 밖에 다른 일에 관한 자신의 입법이 무엇보다도 평화와 여가에 기여하도록 (scholazein) 노력해야 한다. [...] 전쟁을 목적으로 삼는 대부분의 국가는

22) 아리스토텔레스 『아테네 정체』 56.3, 또한 54.7. 본고 각주12 참조. 문혜경(2014), 18, 22쪽.

23) 아리스토텔레스 위의 책, 16.5, 문혜경(2014), 19쪽.

24) 문혜경(2014), 20쪽.

전쟁을 하는 동안에는 안전하지만, 지배권을 획득한 뒤에는 멸망하고 만다. 그들은 평화 시 무쇠처럼 날이 무더지기 때문이다. 그것은 여가를 선용하도록 그들을 교육하지 않은 입법자 탓이다.”<sup>25)</sup> 조금 앞 구절에는 유명한 노동과 여가, 전쟁과 평화의 대비가 나온다. “삶 전체도 노동(ascholia)과 여가(scholē), 전쟁과 평화로 양분된다. 행위 역시 유용한 것과 고상한 것(ta kala)으로 나뉜다. [...] 평화를 위해 전쟁을, 여가를 위해 노동을, 고상한 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나 유용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sup>26)</sup>

『정치학』 8권에는 이상적인 국가에서 교육을 국가가 법률로써 관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주관하는 시민 교육의 일환으로 음악 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음악은 유익하거나 필요에 의해 배우는 것은 아니지만, 자유시민이 여가를 선용하도록 하기 위해 교육해야 한다고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반복해서 ‘전쟁이 평화를 위해 있는 것처럼 노동은 여가를 위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평화가 전쟁의 목적인 것처럼 여가가 노동의 목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민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여가를 가지기 위해서이며, 여가의 선용은 그만큼 중요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가는 즐거움과 행복과 복된 삶을 자체에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한다.<sup>27)</sup> 이렇게 볼 때 축제는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최대 규모의 여가로서 해당 국가의 시민에게 즐거움과 자부심을 주는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 7권에서 시민의 여가 문제에 대해 일반적인 언급을 남기고 있다. 그는 먼저 어떤 사람이 사제가 되어야 할지 언급할 때, 여가가 없는 부류는 배제하고, 일반적인 시민의 업무에서 물러난 연로 계층이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농민과 직공은 사제로 임명되어서는 안 된다. 신을 경배하는 일은 [자유] 시민이 말아야 하기 때문

25)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1334a2ff.

26) 위의 책, 1333a30ff.

27) 위의 책, 1338a1.

이다. 시민은 전사 집단과 심의 집단으로 양분되고, 연로하여 그런 활동을 그만둔 자들이 신을 경배하며 휴식을 취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사제 직은 이들에게 맡겨져야 한다.”<sup>28)</sup>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1] 삶 전체도 노동과 여가, 전쟁과 평화로 양분된다. 행위 역시 필요하고 유용한 것과 고상한 것으로 나뉜다. [2] 여기서도 우리는 혼의 부분과 행위에 적용하는 것과 똑같은 선택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3] 말하자면 평화를 위해 전쟁을, 여가를 위해 노동을, 고상한 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나 유용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sup>29)</sup>

이 구절의 문장을 하나씩 검토해보자. [1] 삶은 ‘노동, 전쟁 vs 여가, 평화’로 구분되며, 행위도 ‘필요하고 유용한 것 vs 고상한 것’으로 양분된다. 즉 전쟁은 필요하고 유용한 것이며, 여가와 평화는 고상한 것이다. [2]의 ‘혼의 부분’ 이야기는 조금 앞 구절에서 “혼(psyche)은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한 부분은 스스로 이성(logos)을 갖고 있고, 다른 부분은 이성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성에 복종할 능력을 갖고 있다. 어떤 사람이 나름대로 훌륭하다(agathos)는 말을 듣는다면, 그것은 그가 혼의 이 두 부분의 탁월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sup>30)</sup>라고 나온 내용을 받은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혼’ 안에서, 이성을 갖고 있는 부분은 지성(nous)이며, 이성은 없으나 그것에 복종할 수 있는 부분은 욕구(orexis)이다. 그러니,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은 훌륭한 사람은 이 두 부분에서 훌륭하다는 것이다. 인간을 이성적인 동물로 정의하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이성을 가진 부분이 더 우월하며, 그 부분에 삶의 목적이 있다고 강조한다.<sup>31)</sup>

---

28) 위의 책, 1329a18-33.

29) 위의 책, 1333a30ff.

30) 위의 책, 1333a16-18.

31) “인간에게 이성(logos)과 지성(nous)은 본성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다. 따라서 시민들이 태어날 때나 습관을 들일 때는 처음부터 이성과 지성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1334b14).

[3]은 바로 행위의 목적에 관련된 언급인데, 즉 평화와 여가는 전쟁과 노동의 목적이며 고상한 것은 유용한 것을 선택하는 이유가 된다. 여가는 인간이 고된 노동을 견디는 이유이며, 인간이 추구하는 고상한 목적인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에서 법제도를 통해 시민들이 평화시에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입법자는 마땅히 전쟁과 그 밖에 다른 일에 관한 자신의 입법이 무엇보다도 평화와 여가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전쟁을 목적으로 삼는 대부분의 국가는 전쟁을 하는 동안에는 안전하지만, 지배권을 획득한 뒤에는 멸망하고 만다. 그들은 평화 시 무쇠처럼 날이 무더지기 때문이다. 그것은 여가를 선용하도록 그들을 교육하지 않은 입법자 탓이다.”<sup>32)</sup> 현실의 역사에서 이 지적에 가장 잘 적용되는 국가는 스파르타일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공교육을 실시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스파르타를 칭찬하지만, 교육의 내용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특히 그들이 군사적으로 강력했고 시민들이 노동에 매이지도 않았으나, 전쟁 승리를 통해 얻은 평화 시에 시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위한 교육을 하지 못했고, 결국 경직된 체제로 굳어져 멸망하고 만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여가는 그만큼 중요하며, 그런 만큼 국가가 시민의 여가 선용을 위한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 7권에서 앞의 이야기를 받아서 여가 선용을 위한 적절한 교육에 대해 말한다.<sup>33)</sup>

전쟁의 목표는 평화이고 노동의 목표는 여가이므로, 개인이나 국가나 여가 선용에 필요한 탁월함을 갖고 있어야 한다. 여가를 즐길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용기와 끈기는 노동에, 철학(philosophia)<sup>34)</sup>은 여가에, 절제와 정

32) 위의 책, 1334a4ff.

33)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1334a13-34.

의는 노동과 여가 둘 다에 필요한데, 여가를 즐기며 평화롭게 사는 자들에게는 특히 그러하다. [...] 그들[만사형통하고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특히 철학과 절제와 정의감이 필요한데, 축복이 넘치는 가운데 여가를 많이 즐길수록 이 세 가지에 대한 필요도 그만큼 커진다.

말하자면 전쟁과 노동을 위해서는 용기와 민첩함과 끈기 같은 덕이 필요하겠지만, 여가를 즐기고 선용하기 위해서는 철학도 필요하고 절제와 정의의 덕(탁월함)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철학이 절제와 정의 같은 탁월성과 나란히 놓여 있는데, 송대현의 연구에서 이 점이 잘 분석되어 있다.<sup>35)</sup> 송대현은 이 구절에 나타나는 ‘철학’(philosophia)이라는 말에 대해, 문학과 음악을 포함하는 문화의 의미로 보는 광의의 해석과 지적인 탁월성을 의미하는 관조로 보는 협의의 해석을 제시하고,<sup>36)</sup> 후자를 선택한다. 그 근거로 그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을 ‘지혜에 대한 사랑’ 혹은 ‘지혜에 따른 활동’의 의미로 사용하면서, 『니코마코스 윤리학』 10권에서 철학함을 관조적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sup>37)</sup>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여가는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놀이(paidia)나 일을 멈춘다는 의미의 휴식(anapausis)과는 다르다. 이 점은 『정치학』 8권에서 잘 나타난다. “여가는 노동의 목표이므로 여가가 날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검토해보아야 한다. 놀이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님은 확실하다. 그렇게 되면 놀이가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할 테니까.”<sup>38)</sup> 이 말은, 노동의 끝에 그 대가로 여가를 가졌을 때 놀거나 쉴 수도 있지만,

34) 그리스어 philosophia는 원래 ‘지혜를 사랑함’이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학문적이고 지성적인 활동 일반을 가리킨다. 천병희 412쪽 각주.

35) 송대현(2014), 144쪽.

36) Stalley (2009)는 여기서 ‘philosophia’를 광의로, 즉 문학과 음악을 포함하는 문화의 의미로 해석한다. p. 573. 송대현 위의 곳에서 재인용.

37) 송대현(2014), 145쪽.

38)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1337b34.

놀이나 휴식은 노동 중에 짬짬이 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목표로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여가 선용을 위서는 철학, 절제, 정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무언가 고상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놀이도 휴식도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가를 선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탁월성이 요구되고, 그것을 배우기 위한 음악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음악은 여가 활동에 포함시켜야 하며, ‘의미 있는 일로 여가를 선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음악이 아이들의 교과목에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한다.<sup>39)</sup>

### 3.3. 시민의 여가와 축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 8권에서 음악과 관련한 시민의 여가 선용 문제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 주목된다.<sup>40)</sup> 이러한 구절들에서 우리는 축제가 음악과 잔치와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자유 시민의 여가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호메로스가 잔치의 손님에 대해 노래한 부분을 언급한다. “그래서 호메로스는 말한다. ‘그런 사람들[자유민]만 풍성한 잔치(daitē)에 초대해야 하오.’”<sup>41)</sup>

이렇게 볼 때 자연스럽게 주목되는 것이 축제에 참가하고 공연을 관람하는 시민의 ‘여가’인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유시민의 내적 자격으로서 일정 수준의 교육을 주장할 때 교과목의 하나로 음악을 강조한 이유와 맥락을 같이 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시민의 여가에 대한 문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국가의 규정 및 그 목적과 관련하여 가장 중시하는 것 가운데 하나이며, 특히 자유시민의 여가 문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리는 국가의

39) 위의 책, 1338a9.

40) 위의 책, 1337b33

41)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8권 1338a23.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일리아스』 10권 217행, 네스토르의 연설 끝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그는 잔치와 주연에 빠짐없이 초대받게 될 것이오.”

문화적, 정신적 성격을 잘 보여주는 대목으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가는 단지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좋은 삶을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국가라면 시민들의 훌륭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국가는 같은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며, 상호 간에 부당행위를 방지하고 교역을 촉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국가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조건에 불과하다. 국가란 그 구성원의 가족들과 씨족들이 잘 살(eu zen)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공동체(koinōnia)이며, 그 목적은 완전하고 자족적인 삶이다. [...] 그래서 국가에는 친인척 관계와 씨족 연맹과 축제(thysiai)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오락이 생겨난다.<sup>42)</sup>

이 구절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 1권 2장에서 국가의 기원과 형성에 대해 말한 것을 상기시킨다. 거기서 국가는 필요에 의해 형성된 작은 모임이 점점 커지면서 자족성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연속되는 사회적 결합체들의 위계에서 최상위의 공동체로서 완전한 자급자족(autarkeia)이라는 최고 단계에 있다.<sup>43)</sup> 각 단계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모인 공동체로 이전 단계보다 더 자족적이며, 그런 의미에서 각각은 자연스럽다. 처음 사람들의 결합은 서로가 끌려서 일어난 것이며 이것은 그들이 공유하는 언어(logos)의 능력에 의해서 가능했다. 위계의 정점에 있는 국가는 마을과 씨족들의 통합으로부터 생겨났으며, 이것들은 다시 개별적인 가정들이 모여서 형성된 것이다.<sup>44)</sup> 그러므로 가정과 마을과 씨족들의 결합이 모두 자연스러우며 위계의 정점에 있는 국가가 또한 자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국가의 목적을 시민의 좋은 삶, 즉 완전하고

42)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1280a31ff.

43) 위의 책, 1권 2장, 특히 1252b27-1253a1.

44) 위의 책, 1권 2장, 특히 1252b15 이하, 1253a7 이하.

자족적인 삶으로 규정하고 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몇 가지를 언급하는데, 그 수단 가운데 하나로 축제를 들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축제가 시민의 좋은 삶을 위한 수단이라면, 제전에 참가하고 체육 경기를 관전하고 비극경연대회를 관람하는 것이 시민의 완전하고 자족적인 삶에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국가의 존재 이유에 해당하는 시민의 축제 참가를 촉진 하기 위해 국가가 시민에게 여가를 줄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될 것이다. 한편 그렇다면 시민에게는 제전의 참가와 관람이 그의 완전하고 자족적인 삶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야 할 텐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일까? 우리는 국가에 의해 보장된 여가를 활용한 축제의 참가와 행사의 관람이 개인 시민의 삶을 완전하고 자족적인 것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경우를 특히 비극경연대회의 관람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4. 관람의 끝(telos) = 관조 혹은 거리두고 보기

##### 4.1. 관람(theorein)과 관조(theoria)

그리스의 축제에서 비극이나 희극의 공연을 관람하는 것에 대한 언급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의 구절들과<sup>45)</sup> 그 외 다른 전거들에서 내용을 가져올 수 있다. Else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동사 theorein은 일반적인 의미의 ‘~을 바라보다, 구경하다’의 의미가 아니라, ‘축제를 관람하다’는 의미로 쓰였다.<sup>46)</sup> 그런데 앞서 우리는 아리스토텔

45) 『시학』에 자주 등장하는 theatēs, theatai (관객, 관중) 뿐 아니라 theatron, theama (극장, 극작) 등 불거리와 관련된 단어들도 모두 theamai (보다) 동사에서 오는데, theōrein 동사와 동족어이다.

46) Gerald F. Else, *Aristotle's poetics: the argument*, E.J. Brill, 1957, p. 335.

레스가 인간의 영혼에서 이성을 가진 부분이 더 우월하며, 그 부분에 삶의 목적이 있다고 강조하는 것을 보았다.<sup>47)</sup> 아리스토텔레스는 기본적으로, 연극의 관람을 포함해서 음악과 여가, 잔치와 축제 참여를 포함한 자유민의 완전하고 자족적인 삶의 정점으로 지적인 활동인 사색(dianoesis)과 관조(theoria)를 놓았다. 그에 따르면, 관조란 인간에게 가장 능동적인 영혼의 활동이기 때문이다.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의 삶도 훌륭하지만, 그 일로부터 물러나 최고의 여가를 가지며 지성을 따르는 관조적 삶이 더 훌륭하기 때문이다.<sup>48)</sup> 국가(polis)에서 축제는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답으로 우리는 위에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시민의 하나됨’을 제시했다. 그러나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축제 관람이 자유 시민의 여가 선용 및 지성적 삶과 연결되고, 결국 사색과 관조를 최종 목적지로 한다는 사실을 밝히려고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비극의 여섯 가지 요소들을 열거하면서 장경(opsis), 즉 볼거리를 다른 요소들에 비해 덜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공포와 연민의 감정은 장경에 의해 환기될 수도 있고 사건의 구성 자체에 의해 환기될 수도 있으나 후자가 더 나은 방법이며 더 나은 시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플롯(mythos)은 눈으로 보지 않고 사건의 경과를 듣기만 해도 그 사건에 전율과 연민의 감정을 느낄 수 있게끔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오이디푸스의 이야기를 단지 듣기만 해도 느끼게 되는 감정이다. 장경에 의해 이러한 효과를 산출하는 것은 비예술적이며 많은 비용이 든다.”<sup>49)</sup>

그런데 이것은 비극이라는 장르 자체에 대한 언급일 뿐 아니라 관객에

47)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1333a30, 위의 3.2 항목 참조.

48)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1095b15ff.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즐기는 삶, 정치적 삶, 관조적 삶 중 첫 번째가 최악이고, 두 번째는 명예나 탁월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이지만 불완전한 것이라고 본다. 관조적인 삶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0권 7장 이하에 나온다.

49)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1453b1ff.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즉 비극 공연이 단순히 볼거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면, 그것은 덜 성숙된 관람객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점을 다시 『정치학』 8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관객(theates)은 두 종류인데, 한 종류는 교육받은 자유민(eleutheros)이고, 다른 종류는 직공과 품팔이꾼 등으로 이루어진 저속한 청중(phortikos)이다. 따라서 두 번째 종류에 속하는 청중의 휴식을 위해서도 경연과 볼거리(agonas kai theorias)가 제공되어야 한다.”<sup>50)</sup>

그러므로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축제 안에서의 행렬과 제의 등 볼거리를 포함하여, 음악 연주나 드라마 공연에 참가했을 때, “저속한 청중”은 공연을 볼거리로서 추구하겠지만, 교육받은 자유민 관객이라면 그것을 단순히 구경거리로서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적어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추구하는 국가에서 축제의 관람이 단지 볼거리의 구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관객의 수준과 무관하지는 않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극에서 특히 비극 작품의 관람에서 특별한 마음의 변화를 겪게 된다. 관객은 불행을 겪는 주인공에 대해 감정이입을 하게 되고 위기의 어느 순간 감정의 분출을 경험하게 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카타르시스라고 언급한바 있다.<sup>51)</sup>

아테네에서 가장 큰 디오뉴소스 축제였던 ‘도시 디오뉴시아’에 관한 연구에서 문혜경은 비극과 희극의 경연(agōn) 이전의 행사인 국가 제식에 집중했는데, 축제에서의 국가 제식과 경연 관람이 관객에게 주는 심리적 영향력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관객과 참여자 모두 혼연일체 속에 신화 속의 영웅을 도시의 삶 속으로 끌어들여 극 속의 내용을 관객 자신의 내면적 자아 속으로 침투하거나 반영되면서 자아의 본질을 변형

50)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8권 7장 1342a17ff.

51) 카타르시스의 사전적 정의는 ‘감정의 정화 혹은 분출’이며, 특히 연민과 공포의 감정과 관련되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카타르시스를 주제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으나, 비극의 정의에서 언급하고 있다(1449b21-28).

시킬 수 있는 것이다.”<sup>52)</sup> 이 말은 특히 비극 관람의 경우에 경험할 수 있는 카타르시스를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혜경은 대 대오닉시아를 민주정 하의 시민 통제와 재교육을 위한 장치로 보는 골드힐의 해석을 수용하여<sup>53)</sup> 이 축제에서의 연극 관람이 신화적 삶과 현실과의 괴리를 인식함으로써 내면적 자아의 충동을 일으키고, 이를 통해 관객과 참여자의 자아를 변형시킨다고 주장한다. 이 해석에 따르면 희극과 비극 경연은 시민의 무질서를 통제하는 방법으로 기능했으며, 드라마 관람은 청중의 감정을 변형시키는 데 일조했다. 연극 경연 이전의 도시적 행사는 시민들에게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드높였고, 그 후 연극 경연의 관람이 관객에게 내면의 자아를 변형시키게 함으로써 결국 아테네인들은 도시 디오닉시아를 통해 다시 한 번 집단적 일치감을 형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sup>54)</sup> 디오닉소스 제전의 기획 의도를 민주정 이데올로와 직결시키는 문제는 이 행사가 페이시스트라토스의 참주정 하에서 국가 축제로 정착된 사실을 감안하면 무리한 해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드라마 관람이 시민들에게 공동의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내면의 변화, 자아의 본질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주장은 축제에서의 연극 관람이 관객으로 하여금 사태에 대한 성찰과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을 통해 결국 근본적인 사색과 관조에 이를 수 있다는 우리의 해석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극 공연에서 관객과 무대와의 거리는 중요하다. 관객은 무대와 물리적인 거리를 두고 있어 무대의 행위들을 직접 겪지 않는다. 그러나 심리적인 거리는 관객에 따라 다르다. 만일 관객이 무대 위의 이야기(mythos)에 감정이입이 되어 있다면, 이 물리적인 거리는 심리적인 직접 체험을 방해하지 못한다. 이것이 관객이 ‘비극의 쾌감’이라 불리는 공포와 연민

---

52) 문혜경(2014), 30쪽.

53) S. Goldhill(1987), p. 76 참조.

54) 문혜경(2014), 31쪽.

을 느끼는 이유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비극의 효과를 카타르시스라고 했다면 그것은 이런 경우에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이런 경우라면 공연의 관람이 관객에게 단순한 구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것, 즉 사유와 관련된 어떤 기능을 한다는 데 동의할 수 있다. 비극 관람은 재미있고, 공감하게 하고, 생각하게 만든다. 그것이 장면에 나타난 사건의 비극성이든, 자기 인생의 의미든, 아니면 정의나 지혜와 같은 사회적 가치이든 말이다. 이제 이러한 정신적 활동을 사색이라고 하고, 이를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관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인 관조와 연결시켜보기로 하겠다.

#### 4.2. 관조와 최선의 삶

순수 지성의 활동으로 이해되는 관조의 개념과 인간이 행하는 최선의 삶의 방식으로서 관조 활동과 관련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 7권에서 언급한 것을 살펴보기로 하자.<sup>55)</sup>

행위에서 결과를 얻기 위한 우리의 생각만이 활동적인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완전하고 그 자체가 목적인 관조(theōria)와 사색(dianoēseis)이 더 활동적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런 사색의 목적은 훌륭한 행위(eupraxia)이며,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활동(praxis)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향적인 활동의 경우에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사색을 통해 그러한 활동을 주도하는 자들이 행동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외적인 활동이나 관계 맺기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비활동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맺는다. “그렇지 않다면 신도 우주 전체도 온전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 고유의 활동 외에

55)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7권 3장, 1325b10ff.

어떤 외적인 활동도 하지 않으니 말이다. 그러므로 개인에게 최선인 삶이 국가와 인류에게도 최선의 삶임이 분명하다.”<sup>56)</sup>

여기서 신들의 고유한(oikeia) 활동은 오직 자기자신에 대한 관조(theoria)이다. 이렇게 볼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유시민의 삶에서 한편으로 정치적 참여와 공적 행위를 중시하면서도, 다른 한편 개인으로서는 그 자체가 목적인, 외적 활동보다 더 활동적이라 할 수 있는 관조와 사색을 통해 최선의 삶에 다가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공적인 활동과 개인적인 사색을 연결해주는 가장 중요한 계기 중 하나가 축제와 연극 공연에의 참여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공연 관람이 자유시민의 공적인 행위이면서 동시에 개인적인 사색의 시작이 되기 때문이다. 관조는 현실과 무관하거나 동떨어진 어떤 것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현실의 문제, 관람한 작품에서 문제로 부각되는 사태, 나에게 주어진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사색이며 근본적인 성찰이기 때문이다.

파커룩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영혼에서 생각하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동사 theorein을 ‘본다’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넘어서 종종 지성적인 지각의 일종으로 사용한다.<sup>57)</sup> 이러한 표현이 나타나는 구절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T1] 1139b21-22 [인식수단 중 episteme] “학문적 인식(epistametha)은 다르게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모두 생각한다. ‘다르게 있을 수 있는 것들’은 우리의 관찰(theōrein) 바깥에서 일어나는 경우 언제나 그것이 그러하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알지 못한다.”

[T2] 1140a10-13 [techne 부분] “결국 기예는 참된 이성을 동반한 제작적 품성과 동일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 모든 기예(techne)는 생성(genesis)과 관계하며, 있을 수도 있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것들, 그리고

56) 위의 책, 1325b27-30.

57) Michael Pakaluk, *Aristotle's Nicomachean Ethics: An Introdu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p. 217.

그 원리가 제작자에게 있지 제작되는 것에 있지는 않은 것들 중 무엇이 생겨나도록 궁구하고(theōrein) 고안하는 것에 관계한다.”

[T3] 1140b8-10 [phronesis 부분] “우리가 페리클레스나 그와 비슷한 사람들을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들(pronimous)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들이 자신과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것들을 분별해 낼(theōrein) 줄 알았기 때문이다.”

이 구절들에는 공통적으로 theōrein 동사가 쓰였지만, 같은 말이 [T1]에서는 관찰의 뜻으로 감각 지각을 의미하는 반면, [T2]에서는 기예와 관련하여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 생각을 짜내는 것을 의미하고, [T3]에서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엇이 좋은지 분별해낸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theōrein은 감각지각을 사용하는 관람이나 관찰과 함께 분별이나 궁구함 등 더욱 깊이 있는 사유를 의미하는, 파키록의 표현을 다시 쓴다면 “지성적인 지각의 일종”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theōrein이 눈과 귀 등 감각으로 하는 관람으로부터 지성(nous)으로 행하는 관조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인식의 행위를 가리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파키록이 제시하는 이 텍스트들과 관련하여 같은 책 6권 5장 첫머리에 나오는 문장이 눈에 띈다. “자신에게 좋은 것, 유익한 것들과 관련해서 잘 숙고할 수 있다는 것이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의 특징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때 잘 숙고한다는 것은] 건강이나 체력과 같은 부분적인 것에서 무엇이 좋은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잘 살아가는 것과 관련해서(pros to eu zēn holōs) 무엇이 좋고 유익한지 잘 숙고한다(kalōs bouleusasthai)는 뜻이다.”<sup>58)</sup> 이 구절은 theōrein을 마지막 의미, 즉 좋은 것들을 분별해 낸다는 의미로 쓰는 경우와 관련되는데, 이 경우 theōrein은 대상을 관찰한다거나 제작을 위해 궁구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58)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1140a25ff.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좋은 것들을 분별한다는 의미이고, 또한 전체적으로 더불어 잘 살아가기 위해 무엇이 좋고 유익한지를 잘 숙고한다는 의미이다. 이 구절을 근거로 한다면, theōrein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행복과 동의어인 지성적 활동으로서, 단지 개인의 내면적인 사안에 대한 궁극의 사유활동을 한다는 뜻만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 안에서 시민의 삶을 염두에 둔 좋음들을 잘 숙고한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다.

이제 theōrein이 다른 대상이 아닌 그 자체의 사유로서, 순수한 지성적 활동의 의미로 쓰이는 구절을 보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국가의 목적을 시민의 완전하고 자족적인 행복한 삶이라고 했는데, 이는 그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인간의 행복(eudaimonia)을 규정한 데서 이어진 것이다. 이 규정이란 행복은 ‘완전한 탁월성(aretē)에 따르는 영혼의 어떤 활동’이라는 것인데,<sup>59)</sup> 『니코마코스 윤리학』 10권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완전한 혹은 최고의 탁월성은 최선의 것에 대한 탁월성이며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중 최선의 것은 바로 지성(nous)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지성은 자신의 고유한 탁월성에 따르는 활동(energeia)을 하는데 이것을 그는 완전한 행복이라고 하며, 또한 이 활동이 관조적인 것(theōretikē)이라고 한다.<sup>60)</sup> 행복한 삶의 또 하나의 특징인 자족성도 다른 무엇보다 관조적 활동과 관련한다. 다른 탁월성을 가진 사람은 그 탁월성을 행할 상대가 필요하지만, 철학적 지혜를 가진 사람은 혼자 있어도 관조할 수 있으며 가장 자족적이다. 이렇게 지성은 활동 자체 이외에 다른 목적을 추구하지 않고 자신의 고유한 즐거움을 가지는 것이며, 인간에게 가능한 한 자족성과 여가적인 성격, 그리고 지극히 복된 자에게(tōi makariōi) 속하는 모든 성질들이 바로 이 활동에 따른 것이므로, 이 활동이야말로 인간의 완전한 행복일 것이다.<sup>61)</sup>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삶이

59)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1.13, 1102a5.

60) 위의 책, 10.7, 1177a12-19.

61) 위의 책, 10.7, 1177b25.

사실 인간적인 차원보다 높은 것이고, 인간 안에 어떤 신적인 어떤 것이 존재하는 한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지성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한다.

장영란은 그리스의 축제가 경연(agōn)이라는 형식을 사용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탁월성(aretē)의 훈련을 추구했던 것으로 해석하면서,<sup>62)</sup> 플라톤의 『국가』에서 몸을 위한 교육과 영혼을 위한 교육 중 후자가 더 중요하다고 한 사실을 언급함으로써<sup>63)</sup> 축제의 경연을 영혼의 탁월성을 강조하는 그리스의 전통과 연결시킨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영혼의 탁월성을 강조하면서, 영혼을 이성적인 부분과 비이성적인 부분으로 구분하고 또한 탁월성을 지성적 탁월성과 성품의 탁월성으로 구분한 사실을 지적한다.<sup>64)</sup> 장영란의 연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축제의 연극 관람에서 시민이 내면의 변화를 겪고 자아의 반성을 통해 지성적 활동의 길로 들어가서 결국 관조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우리의 주장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 5. 나가는 말

아테네의 시민은 일 년 내내 다양한 국가적 제의와 축제의 볼거리를 통해 사회적으로는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드높이고 개인적으로는 여가를 선용할 기회를 갖게 된다. 기원전 5세기와 4세기의 민주정을 기준으로 할 때, 도시의 축제가 민주주의 이데올로기를 유지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든 아니든, 시민들이 국가적 자부심 고취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단일성과 시민의 하나됨을 회복하는 사회적 효과가 있었음은 틀림없다. 앞

62) 장영란(2013) 295쪽.

63) 플라톤, 국가, 403d 참조.

64) 장영란(2013) 297쪽.

에서 본 것처럼, 대 디오닉소스 제전에서 연극경연 이전의 국가 행사는 기존의 제사장인 바실레우스가 아니라 각 데모스에서 선발된 10명의 집정관들이 사제로서 제전을 주관했는데, 이것은 기존의 바실레우스의 권위를 무너뜨린 것이며, 따라서 시민들이 축제에 흔쾌히 참여하는 여건이 된다. 국가 행사에는 동맹 폴리스들의 공물 전시, 전몰 시민의 자식들의 무장 열병식이 있었는데, 여기서 시민들은 자신의 도시 아테네의 위대함을 새삼 느끼고 자부심을 고양시키며,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갖게 된다. 이것은 시민들 간의 더 많은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 주며 결국 국가가 추구하는바 시민들의 마음의 일치(homonoia)를 이룰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또한 같은 대 디오닉소스 제전에서 본 행사로 연극의 경연이 열렸는데, 특히 비극 공연은 무대 위에서 인간의 능력과 한계, 고난과 불행을 사건과 대사, 노래와 춤으로 증폭해서 보여주고 들려줌으로써 관객으로 하여금 감정이입을 통해 공포와 연민의 감정을 일으키고 결국 카타르시스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므로 비극의 관람은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시민들이 공동의 볼거리를 놓고 집단적인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긴밀한 공감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며,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여가를 제대로 활용할 기회가 된다. 개인 관객으로서는 긴박한 사건과 눈을 뗄 수 없는 장면,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대사들이 즐거움과 함께 진지함의 태도를 취하게 한다. 여가는 놀이나 휴식과는 다른 것이다.<sup>65)</sup> 놀이는 장난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고 휴식은 활동을 멈추는 것인데, 만일 어떤 사람에게 공연이 그냥 즐거울 뿐이라면 그런 관객에게는 연극 관람이 놀이나 휴식에 불과하겠지만, 여가를 선용하는 데 필요한 탁월성인 철학, 절제, 정의를 갖추고 음악을 이해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연극 관람은 거기서 제기되는 인간과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들

65)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8권 3장, 1337b34. 위의 3.2 항목 참조.

에 대한 진지한 사유로 이어질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육 사상의 중요성을 현대의 교육에 가장 많이 전파한 사람은 미국의 철학자 존 듀이일 것이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육사상을 수용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든다. 첫째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전문지식과 교양교육을 구분한 것이고, 둘째는 덕 교육에 대한 그의 사상이다. 첫 번째 이유에 덧붙여 듀이는 “단순히 무엇을 할 줄 아는 기능이나 외적 산출물을 누적하는 것은 이해와 감상 그리고 관념의 자유로운 구사보다 열등하며 이런 것들에 종속된다고 본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영원히 옳다”고 주장한다.<sup>66)</sup> 그는 또한 지식(episteme)을 통해 덕이 획득된다는 플라톤의 주장을 거부하고 덕은 습관과 실행, 경험을 통해 획득된다고 주장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sup>67)</sup> 듀이는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인간의 활동 가운데 ‘이해와 감상 그리고 관념의 자유로운 구사’가 유용성을 추구하는 지식보다 더 우월하다는 점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다. ‘이해와 감상 그리고 관념의 자유로운 구사’는 진지한 사색을 요구하는 지성적 활동이다. 여기서도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연극 관람을 통한 관조의 길이 자유시민에게 중요한 여가의 선용을 위한 활동에서 가장 높은 단계의 것이라는 우리의 해석이 강력하게 뒷받침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결론은, 축제의 경연에서 제공되는 연극 관람은 여가를 선용할 줄 아는 자유시민에게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진지한 사유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사색과 관조의 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행복을 탁월성에 따르는 영혼의 어떤 활동으로 규정하고 지성의 활동을 최고의 행복으로 본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이 기회는 훌륭한 국가가 훌륭한 시민에게 제공하는 시민교육의 효과 가운데 가장 값진 것이라고 하겠다.

66) J. Dewey, *Democracy and Education*, Macmillan, 1961 (1916), p. 256.

67) J. Dewey, 위의 책, p. 355.

## 참고문헌

- 김광선(2009), 『디오니소스제전에서 뮤지컬까지. 서양 음악극의 역사』, 연극과 인간.
- 문혜경(2014), 「도시 디오뉴시아 축제와 아테네 민주정치」, 『서양고전학연구』 53-2, 5-36.
- 손윤락(2012),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서 국가와 시민교육」, 『서양고전학연구』 48, 149-174.
- \_\_\_\_\_ (2013),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민교육에서 덕-성격과 음악」, 『동서철학연구』 69, 29-47.
- \_\_\_\_\_ (2015),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시민교육과 그 대상의 문제」, 『서양고전학연구』 54, 65-86.
- 송대현(2014),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7-8권에 나타난 여가(schole) 개념」, 『서양고전학연구』 53권 2호, 123-164.
- 장영란(2013), 「그리스 종교 축제의 원형적 특성과 탁월성 훈련」, 『철학논총』 73, 281-301.
- \_\_\_\_\_ (2013), 「그리스 종교 축제의 영혼의 치유와 소통」, 『동서철학연구』 69, 233-255.
- 최혜영(2010), 「대 디오니시아에서 비극이 상연된 배경과 의미」, 『서양고전학연구』 39, 5-33.
- Aristotle (1892), *Athenian Constitution*. ed. F. G. Kenyon, *Aristotle on the Constitution of Athens*. [Athenaion Politeia]. Oxford: Clarendon Press.
- \_\_\_\_\_ (1990), *Poetics*. 『시학』 천병희 옮김, 문예출판사.
- \_\_\_\_\_ (2013), *Nicomachean Ethics*. 『니코마코스 윤리학』, 강상진 외 옮김, 길.
- \_\_\_\_\_ (2017), *Politics*. 『정치학』, 천병희 옮김, 숲, 2009. 『정치학』, 김재홍 옮김, 길.
- Dewey, J. (1916), *Democracy and Education*, Macmillan, 1961.
- Else, G. Frank (1957), *Aristotle's poetics: the argument*, E. J. Brill.
- Goldhill, S. (1987), "The Great Dionysia and Civic Ideology", *Journal of Hellenic Studies* 107, 58-76.

- Homer (2007), *Ilias*. 호메로스, 『일리아스』, 천병희 옮김, 숲.
- \_\_\_\_\_ (2007), *Odysseia*. 『오뒤세이아』, 천병희 옮김, 숲.
- Meier, Ch. (1993), *The political art of Greek tragedy*, trans. by A. Webber, Cambridge: Polity press.
- Pakaluk, Michael (2005), *Aristotle's Nicomachean Ethics: An Introdu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lutarch (1914), *The Parallel Lives, Vol. I*. Loeb Classical Library Edition.
- Roochnik, David (2009), "What is Theoria? *Nicomachean Ethics* Book 10.7-8", *Classical Philology*, Vol. 104, No. 1, 69-82.
- Stalley, R. (2009), "Education and the State", *A Companion to Aristotle*, ed. G. Anagnostopoulos, Oxford: Blackwell, 566-576.
- Vernant, J.-P., Détienne, M. (1979), *La Cuisine du sacrifice en pays grec*, Paris.
- Vernant, J.-P. (1966), *Mythe et pensée chez les Grecs* (1966), 『그리스인들의 신화와 사유』, 박희영 옮김(2005), 아카넷.

원고 접수일: 2018년 7월 26일

심사 완료일: 2018년 7월 31일

게재 확정일: 2018년 8월 1일

ABSTRACT

---

Festival, Civic Leisure,  
and Contemplation in Aristotle's Works

Sohn, Yunrak\*

This study focuses on the question of what function the Greek festival played in society at the time, what implications it had on the members of society, and how it ultimately influenced their lives. In particular, I will try to reconstruct the form and content of the Greek festival, around references in Aristotle's *Politics*, *Poetics*, *Athenian Constitution*, and *Nicomachean Ethics*, and trace the implications of the festival to citizens at the time. The mediator in this study is Aristotle's term 'leisure'(scholē) of the citizen, who participates in the festival and watches the theater shows and performances. This term is understood in the same context in which Aristotle emphasized music as an educational subject, when he insists on a certain level of education as a precondition for a free citizen. The final argument of this study is, on the ground of Aristotle's thoughts in his texts, that participation in festivals and the enjoyment of theater is a public activity that involves free citizens and at the same time is the beginning of the personal act of contemplation. Because contemplation is not an idea that is irrelevant or distant from real life, but rather a reflection of the reality surrounding life or a particular situation that seems to be a problem in theatrical works, and a deep and fundamental reflection of life in general.

---

\* Professor, Dharma College, Dongguk University